

빛더미 뻥한 골프장 강행...책임론 대두

뉴스 분석

경도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경도골프장의 매각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으로부터 경도골프장 조성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주의'를 받는데 민간 영역과 경쟁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운 뒤 민간업체가 받을 수 없는 행정적인 혜택, 지방채라는 손쉬운 자금 조달을 통해 골프장, 콘도, 호텔 등 민간 영역에 무리하게 진입해 문제를 빚었다는 책임론도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대해 '경도골프장 및 한호호텔 조성사업 추진 부적절'을 이유로 각각 주의 조치했다. 경도골프장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어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경쟁할 경우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과 골프빌라 회원권 분양은 회원에게 이용우선권이 있어 도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 근거도 없이 회원권 분양률 100%를 전제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초기 공사비로 공사채 1800억원을 발행했고, 전남도는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해줬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골프회원권 가격 급락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원이 102명에 불과하자 2012년 10월 19일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애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경도골프장 조성사업에 2016년까지 공사채를 포함해 4095억원을 투입한 뒤 골프회원권 분양 1399억원, 골프빌라(300호) 분양 1908억원, 기업연

복합리조트 사실상 무산 ... 경도골프장 매각 문제 다시 부상

지방채로 자금 조달 ... 감사원, 전남도·전남개발공사에 '주의'

수원 및 테마파크 부지 등 토지(27만4790㎡) 매각 608억원 등을 통해 3915억원을 조달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대로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 골프장은 대중제로 바뀌었고, 골프 빌라는 부지만 조성된 상태며, 기업 연수원 및 테마파크 부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분양을 통해 단기간에 공사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운영 수익으로, 장기간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처

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개발공사 경영진단에 따라 경도 골프장 매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고가 나오면서 잠정 중단했었다. 당시 수도권 몇몇 업체가 외부 자금조달을 통한 골프장 매입 의사를 타진해오기도 했지만, 매각 금액이 커 난관이 예상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매각을 포함해 경도골프장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단지화로 모색이 기대됐던 여수 화양지구에 중국 자본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13일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시 화양면 화양지구 260만평을 개발할 외국자본을 공모했으나 응모한 외국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네팔 전 총리 광주방문...광주진료소 논의

총리가 13일 광주를 방문, 전남대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전대병원과 조대병원, 광주시 소방본부, (사)희망나루 등은 대지진 피해 당시 광주시 긴급구호팀 일원으로 피해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의료구급활동을 벌였다. 쿠마르 전 총리는 14일 윤정현 광주시장을 만나 네팔 광주진료소 건립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대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지역에 광주진료소가 올 하반기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마드하브 쿠마르(Nepal Madhav Kumar) 네팔 전 국무총리가 13일 광주를 방문, 전남대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전대병원과 조대병원, 광주시 소방본부, (사)희망나루 등은 대지진 피해 당시 광주시 긴급구호팀 일원으로 피해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의료구급활동을 벌였다. 쿠마르 전 총리는 14일 윤정현 광주시장을 만나 네팔 광주진료소 건립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朴대통령, 中에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호소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빠야프게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장병완 더민주 탈당 안철수 국민의당 합류 선언

총선 D-90

박지원 등도 다음주 탈당 국민의당 광주 제1당으로

주승용(여수 을), 장병완 의원(남구)이 1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3·5면>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은 패권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며 "야권재편을 통한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전념하겠다"고 탈당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더민주의 정부·여당의 거둬들이는 실정에도 화석화된 야당 체질에 갇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승리의 새 길을 가겠다"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더민주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강기정, 박해자 의원 두 명만 남게 됐다. 하지만 박해자 의원도 사실상 탈당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남도 박지원(목포)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이운석(무안·신안) 김승남(고흥·보성)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이 다음 주까지 탈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전북에서도 유성열, 김관영 의원에 이어 2~3명이 추가 탈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에는 더 민주의 호남 과반이 붕괴되면서 국민의당에 이어 제2당으로의 전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내에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탈당 등이 예상되면서 원내교섭단체(현역 국회의원 20명)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총선 연기해야”

사상 초유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 ... 정치 쟁점화 주목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가 선거구 확정 논란 지연을 비판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 쟁점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준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만약 강력한 제3당이 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

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1%조에 따르면 현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 연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6·25 전쟁 중에도 총선은 치렀다"며 "총선을 연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구 확정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금성관 보물 지정 추진 ▶2면
김은영의 그림생각 '사다리' ▶3면
광주 거주불명자 8835명 ▶6면
파죽 간호사...광주출신 이목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촉촉한 미세오일입자가 깊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